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0.12

013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2010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 7+1** 뉴스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유치
건축사 승호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 지정
옛 **전남도청 별관** 지금까지 철거 논란 중
세계적 건축거장들, 광주에 **어반폴리** 디자인 계획
건축사 아카데미 시작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철거에서 보존으로 선회
다가구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필요**

시론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나누는 것은_홍기남
청소년들에게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_남기봉

특별기획

2010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 7+1 NEWS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민들기와 광주_이명규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_조용준

작품소개

2010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광주영성박물관'

사람 & issue

광주건축계의 어른 안태경 건축사를 만나다.

국내 건축기행

전주 한옥마을 탐방_박신남

해외 건축기행

일본 건축 기행_박용근

대학소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제7회 광주 · 건축도시문화제 이모저모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나누는 것은



홍기남 국장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다사다난했던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시골 초가집 따듯한 아랫목이 자꾸 그리워진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배곶으며 등까지 시리면 안 된다'며 잔설을 얹으며 겨우내 땀 땀갈 마련을 위해 지게를 우리 형제들에게 지우고 아가시아 나무와 오리나무가 집단식식하는 눈 쌓인 뒷산 골짜기로 안내하던 시절이 뇌리를 스쳐간다.

지금이야 스위치만 누르면 따듯한 물이 팔팔 넘쳐흐르고, 한겨울에도 반팔 티셔츠와 팬츠만 입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아련한 추억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찬바람이 소스라치게 불고 가로수 낙엽이 찬바와 함께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 세월의 빠름을 생각하게 되고 거리엔 어김없이 구세군이 등장하고, 사랑의 온도계가 설치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자는 현수막들이 붓물을 이룬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것을 크게 키워서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오늘 편히 잘 수 있는 잠자리와 따뜻한 끼의 식사 그리고 다정한 이웃 일지도 모른다. 나눔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선5기 창조도시 만들기 비전으로 출범한 우리 광주가 친 시민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 나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과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희망 나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자력으로 주거환경 개선 여력이 없는 자가(自家) 소유 저소득 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은(謝恩)행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주체가 되어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망라한 자원봉사대를 조직 기업을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분위 조성하고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등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증진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노후시설 개·보수,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의 연장선에서 장애인가족,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영세시민을 위해 강운대 시장이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총 597세대 노후 주택 난방, 장판, 창호, 벽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주거복지사업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금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펼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희망 나눔'이란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할 창조도시의 공동체로서 많은 이들의 참여와 봉사가 한데 어우러져 구심점을 이룰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고 어둠 속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문득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란 시가 떠오른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청소년들에게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남기봉 교수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요즘 대학생들의 의식변화가 날로 새롭게 느껴진다. 대학은 학생이 공동사회 구성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지막 교육과정이자,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의 수가 대학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졸업 후에도 사회참여 기회를 회피하거나 가능한 그 시기를 늦추어 보려는 의도를 지닌 학생도 늘고 있다.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지 못해서 마음졸이는 부모의 입장이나 졸업을 눈앞에 두고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학생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스승의 입장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취업했다 하더라도 마음 졸이기는 여전하다. 수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해 버리는 현상에도 이제 익숙해 졌다.

막상 사회로 나가려니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임시성적에 따라 선택된 전공도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만 것이다. 입시위주교육에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인성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도 그 원인이라 한다. 무너져 버린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그 동안 수없이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가치관 혼란은 여전하며 사라져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복원시키기 위한 배려와 교육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가정교육도 문제다. 네 자식의 권익만을 우선하는 부모들의 보호의식은 결국 자녀들에게 공동사회의 한 사람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다. 가족 내에서는 하나 둘 밖에 없는 귀한 자식으로 자기주장만을 관철 시킬 수도 있지만 공동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수천만 구성원 중 한사람이 된다. 이기적이고 나 혼자만의 권익을 위한 사고와 행동은 고립된 불행한 삶의 시작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바른 교육환경을 찾아서 수차례 이사를 하였다. 무너져가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 결여에 대한 책임은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성장과 개발 위주로 조성된 생활환경은 극히 단편적이며 획일적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이나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수천가구 대규모로 조성된 주거지 연내에서는 서로가 간섭받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열광 없는 생활환경 즉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곳에서 근린주민이라는 지역적 소속감과 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만다.

공동사회에 대한 적응교육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주거환경 조성의 근간이 되는 상호접촉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장소적 배려는 소홀이 취급되었다. 몽크의 소외되고 고립되어 정체성을 잃어가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우리 청소년이 처한 환경이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조상들이 마을이란 공동체내에서 사회적인 견제로 이웃과 세대 간 이루어 내려온 유대와 균형이 신도시 개발과 그에 따른 정주환경변화로 상실되고만 것이다. 이제는 옛 마을단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동사회 이탈현상이 우리 도시에서 일상화해 되었다.

서구사회도 산업혁명 이후 신구도시 사이의 급속히 진행되는 이질적인 생활환경변화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경험하며 그 해결방법으로 개발과 생활환경이 서로 조화를 유지하는 균형개발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물리적인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거주환경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 상실과 공동체 의식 결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때 세대와 계층 간 두질된 소통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를 의식을 복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은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마련하는 책임과 역할은 우리 건축인의 몫이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랑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 외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면
- 구 독 료 입금 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원협동조합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News

2010년 광주·전남·전북 건축 7+1 뉴스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유치



광주지역 건축계에서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광주건축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된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대회에 전국 5천여 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건축사회 백승천 회장으로부터 대회를 전달받은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이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에게 2012 차기 대회를 전달하면서 전국 건축인 앞에서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유치를 공식화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강운태 회장의 차기대회 유치 축하 영상이 상영되면서 광주지역 건축계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차기대회를 완벽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건축거장들, 광주에 어반폴리 디자인 계획



광주시는 내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세계 50대 건축사 중 10여 명이 고려시대 축성된 뒤 일제에 의해 파괴된 광주읍성 주변에 건축 작품을 설치하는 어반 폴리(Urban Folly)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참여 건축사로는 도미니크 페로 씨(프랑스)와 알레한드로 사에라폴로(스페인), 시게루 반(일본), 플로리언 베이겔(영국), 피터 아이젠먼(미국), 조성룡(한국), 나데르 테라니(미국), 후안 헤레로스 씨(스페인) 등 8명이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현상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푸른길 공원 건축을 설치에는 승효상 총감독(한국)과 아이웨이웨이 씨(중국) 등 2명이 참여하며 나머지 한 명은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작품은 벤치, 승강장 등 공공시설물과 건축물로 분류될 예정이며 건축물은 미니어처 형식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사 승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2011년에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건축사로서는 처음으로 승효상 건축사가 선임되었다.

지난 3월 19일에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사회회의를 열고 승효상 건축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하였으며 외국인 보조감독과 협업형태로 진행토록 하였다.

비엔날레재단은 "역대 디자인 총감독의 전공분야가 산업디자인이었던 점을 감안, 타 장르로 영역을 넓히는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승효상 건축사의 경우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에 대한 넓은 식견과 실무 경험, 철학적 사유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전시기획 경험 등이 선임 이유"라고 밝혔다.

건축사 아카데미 시작



회원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들에게 건축 및 관련 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9월부터 시작된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2011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승효상 건축사를 비롯한 전남대학교 산남수교수, 조선대학교 조용준 교수, 광주시 도시디자인과 이종근 과장, 등 유명 명사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는 회원 인종교육시간 인정과 함께 각종 추천 및 위원 위촉에 우선하고 회장 명의의 수료증 교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건축사회 한 회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사 아카데미는 이 지역은 물론 타지역 건축계까지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 지정



전북에 큰 경사가 났다.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영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주한옥마을과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리 등 2곳을 슬로시티로 지정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 되었다. 세계 20개국 135곳의 슬로시티 가운데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가 지정된 것은 전주한옥마을이 처음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주한옥마을이 한옥 700여채와 골목길이 살아있는 한옥촌이자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이 모셔진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한국적인 전통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등 슬로푸드 콘텐츠와 함께 한지와 한지공예품, 판소리 등 '한스타일'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철거에서 보존으로 선회



철거와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 시민회관을 가능한 한 원형 보존한 뒤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문제가 있는 천정이나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지만 외형 변형 없이 그 상태를 보존해 내부를 꾸미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철거작업을 중단한 채 건축·조경·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월 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민회관은 1970년대 광주 최고 공영장으로, 전면부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작품상을 받을 정도의 훌륭한 유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 시민회관 철거작업을 시작했으나, 건축 및 조경 전공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시민회관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통해 보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지금까지 철거 논란 중



광주의 정신이 깃든 전남도청 별관 철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30일 광주시 강운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광주시 의장이 참여한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한 별관 부분보존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수정안에는 5·18 사적지 원형보존 광주·전남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별관 철거구간 24m의 전체 4층 가운데 3층까지만 철거하고 4층은 본관과 남아 있는 30m 길이의 별관과 연결하는 통로로 남겨두자'라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일부인사들은 "전남도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며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공간인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권 국회의원도 수정안 발표 당일 '10인 대책위에 참석해 "역사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을 온전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5.18정신을 가장 빛내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대열에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광주지역 건축계가 경찰의 건축행정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건축사의 부적절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다수의 건축사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광주시 동·서·남·광산구 등 4개 구청 건축과와 건축사 사무실 9곳, 건축사 자택 7곳 등 총 20곳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이날 건축사 A씨와 건축사무소 관계자 B씨 2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터진 다가구주택에 대한 문제는 전체 건축사들이 지탄받을 문제는 아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축주, 시공 편의를 추구하는 시공자, 거기에 극히 일부 도덕성이 결여된 건축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건축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건축물(660㎡이하)은 시공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는 '시공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매번 시공자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설계에 임해야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 모두 이익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열번째 이야기 : 일본의 '세타가야구'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2010년 3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2010년 4월호에 게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게재)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2010년 6월호에 게재)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푸리피바' (2010년 7월호에 게재)
6. 여섯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밴쿠버' (2010년 8월호에 게재)
7. 일곱번째 이야기 - 미국의 '시애틀' (2010년 9월호에 게재)
8. 여덟번째 이야기 - 일본의 '요코하마' (2010년 10월호에 게재)
9. 아홉번째 이야기 - 일본의 '구마모토' (2010년 11월호에 게재)

마을만들기의 모델도시 동경도 세타가야구

동경도 23구의 하나인 세타가야구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가장 앞서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기초 지자체로 유명하다. 동경도 산하의 구청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단체장에 당선된 오오바 케이지(大場啓二)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세타가야구청장을 지내면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도시행정을 펼쳤다. 즉,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마을만들기라는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고 펼쳐나갔다.

그래서 세타가야구청이 하면 동경도의 다른 구청들도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매우 앞선 행정을 펼쳐왔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었으나 당시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앞선 도시행정이었다.



오오바 케이지(大場啓二) 세타가야구청장의 초상화 : 세타가야구청의 접견실에 걸려 있는 초상화로 오오바 케이지 구청장은 1975년 초대 구청장을 시작으로 약 30년간 세타가야구청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단체장의 임기제한이 없다.

즉, 시정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행정은 거기에 서브(serve)하는 말 그대로 공무원(servant)으로서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구청정의 목표로 삼고 또한 그렇게 해왔다. 세타가야구청이 이렇듯 마을만들기에 대해 모델도시가 된 데에는 오오바 케이지 세타가야구청장이 약 30년 간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또한 주변에는 동경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이 있어 단순히 용역을 수행하는 우리네와는 다른 진짜 미래 도시계획행정이 어떻게 가야하는가 하는 이론적 토대와 실험을 제공해 주었고, 행정측에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관례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도시행정을 하겠다는 정신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는가 평가해 본다.

도시개발의 실험 : 타이도지구 (世田谷區 せたがやく)마을만들기

타이도지구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낡고 오래된 목조주택이 많고 길을 험소하여 재개발을 해야될 지구이었다. 이러한 지구에 대해 과거 같은 행정은 개발계획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겠지만, 새로 당선된 오오바 케이지구청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세타가야구에서 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계기가 된 타이도지구(太子堂地區)로 구청에서 일방적 개발방식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을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크고 작은 소공원과 녹도 등이 만들어졌고 일부 구간에는 도로도 개설되었다.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주민들도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몇 년간에 걸친 주민들간의 행정과의 갈등은 사라지고 몇 개월에 걸친 주민들간의 논의 결과 새로운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되어 결정된 개발계획을 구청에서는 그대로 추진하여 몇 년째 갈등의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도시행정의 성공사례로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주민들은 소위 목조주택이 많은 낡은 타이도지구에 대해 재개발대신 마을만들기라는 새로운 도시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또한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거기에 전문가의 조언과 생각을 보태어 세타가야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자그마한 주민공원(포켓공원) 등이 만들어 졌다.

대표적인 주민공원인 잠자리공원은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뒤덮여진 도시공간에 그냥 맨땅이 있는 공원을 갖고 싶다고 하여 잠자리공원의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고 공원이름도 잠자리가 노니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잠자리공원(톱보이공원)으로 명명하였다. 잠자리공원을 시작으로 타이도지구에는 크고 작은 주민공원이 20여개 만들어 졌으면 이들도 매우 특색있게 만들었다.



타이도지구내 주민들이 제안하여 첫 번째로 만든 잠자리공원으로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다.



가라시마 녹도로 처음 구청에서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보행자도로로 만들 것을 제안하여 차량이 못 다니는 보행자중심의 녹도로 만들었다.

마을만들기의 체계 구축과 성공요인

국내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붐이 일면서 세타가야구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방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타가야구청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세타가야구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마을만들기를 일회성의 사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데에 있지 않은가 한다.

먼저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을만들기센터를 구내 5곳에 설치하였고, 마을만들기센터, 마을만들기 펀드 등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합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행정 등이 뒤에서 도와주고 협조하는데 있지 않은가 한다.



타이도지구내 포켓파크인 소공원으로 간판에는 아침과 저녁에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문구가 비치되어 있다.



하네기공원내에 플레이파크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원을 관리하고 가꾸는 곳으로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무도 타고 놀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서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연례라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워크숍같은 모임을 활성화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마을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회성 용역만능주의와 사업적 도시계획프로젝트, 그리고 인허가 위주의 도시만들기 환경에서는 주민참여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는 요원하다고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세번째 이야기 -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1. 첫번째 이야기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에 게재)
- 2. 두번째 이야기 -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에 게재)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프라하는 동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면 빼놓지 않고 들리는 도시인데, 특히 젊은이들이나 신혼여행자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도시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 중의 하나라는 점 외에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영화와 상업광고의 촬영지가 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는데, 유럽에서 중세도시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이 도시의 해질 무렵에 성당 등을 배경으로 한 황금빛의 구시가지 모습과 유럽 3대 야경 중 하나로 불리우는 불타강을 배경으로 한 야경을 보면,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다.

프라하는 고딕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등의 건축이 박물관처럼 잘 보존 되고 있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기도 한 도시인데, 이는 1945년부터의 도시계획에 의해 구시가지 등의 역사적 건축물은 철저히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건축물은 규제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1968년의 프라하 봄과 1989년의 벨벳혁명으로 인해 자유화 상징도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도시들에 비해 물가마저 저렴하여 관광객에는 여러모로 인기가 많은 도시이다.



프라하 시가지 지도

프라하는 시가지 중앙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불타강을 중심으로 서쪽 기슭에는 프라하성 지구가 있고, 동쪽에는 12세기에 조성된 구시가지와 14세기에 조성된 신시가지, 유태인 지구가 있고, 이들 사이를 카렐교가 연결하는 공간 구조이다.

프라하 신시가지의 건축 자산

관광은 체코의 건국 아버지인 성 바츨라프의 기마상이 있는 신시가지의 바츨라프 광장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는데, 국립 박물관 앞에서부터 무즈텍 광장까지 길이 750미터, 폭 60미터의 대로에 가까운 이 광장은 1968년의 프라하 봄 당시에는 소련군 탱크가 가장 먼저 짓밟았던 곳이다.



바츨라프 광장

또 1969년에는 안 팔호라는 학생이 소련 침공에 맞서 분신자살을 했던 곳이자, 1989년에는 벨벳 혁명의 무대로서 훗날 대통령이 된 하벨이 100만명 앞에서 연설을 했던 프라하의 역사 그 자체이다. 유명한 백화점과 호텔,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이 광장은 특히 여름에는 노천카페들로 장관을 이룬데, 광장 위쪽에는 세계 10대 박물관중의 하나로서 프라하 봄 당시에는 소련군의 총탄세례로 인해 심하게 상쳐받기도 했던 국립박물관이 있다. 19세기말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신축된 이 박물관에는 체코의 역사와 고고학, 광물,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어 또 다른 프라하의 역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화국광장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원래는 구시가지로 통하는 13개 출입문 중의 하나로서, 17세기에 화약을 보관했던, 15세기에 세워진 높이 65미터의 고딕식 화약탑의 미술관도 만나게 된다. 이 옆에는 매년 봄에 열리는 프라하의 유명한 음악 축제인 프라하 봄의 개막과 폐막 공연이 열리는 시민극장도 있는데, 유럽에는 유명한 음악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음악축제만을 여행하는 관광객도 많다. 이곳에서 프라하의 대표적 상품인 전통 인형 등의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한 첼레트나 거리를 따라서 불타강 쪽으로 가면, 늘 수많은 관광객과 거리예술가등으로 붐비는 구시가지 광장을 만나게 된다.

프라하 매력의 원천인 구시가지

17세기에 합스부르크에 대항한 27명의 프로테스탄트 체코인 귀족들이 처형된 이 광장에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 교회의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체코 영웅 안후스의 거대한 둥근 청동상, 14세기에 고딕 양식으로 건립된 이후에 17세기까지 다양한 양식이 가미된 80미터 높이의 2개 첨탑이 있는 성당의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의 금제 초상이 아주 인상적인 틴 성당도 있는데, 이들 야경은 흡사 동화속의 탐처럼 잊을 수 없는 감흥을 준다.



구시가지 광장 야경

이 성당 옆에는 18세기에 킨스키 백작이 신축하여 현재는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코코 양식의 골드 킨스키 궁전이 있고, 틴 성당 건너편에는 12세기에 건축되어 틴 성당이 신축되기 전까지 구시가지 교구성당 역할을 했던 바로크 양식의 성 미콜라스 성당도 있다. 또 벽에는 15세기에 천동설에 입각한 우주관을 바탕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두개 원으로 만든 천문시계가 있는 구시청사도 있다. 14세기에 건축된 높이 70미터의 이구청사는 매시 정각이 되면 시계 위쪽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2명씩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구시가지 광장은 언제나 프라하 매력의 원천이 된다.

이 광장에서 위쪽의 거리를 따라 조금 더 가면 8세기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한 유대인촌이 있다. 이곳에는 세계 대전 당시 나치수용소에 수감된 후에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8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유대교회와 15세기 말부터 모지가 폐쇄될 때 까지 약 300여 년 동안 프라하에서 유일하게 유대인 매장이 허용되어 많게는 12층까지 모지를 쓴 유대인들의 공동모지도 만나게 된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잇는 카렐교

구시가지 광장에서 조금 더 가면 카를 4세가 14세기 말에 건축을 시작하여 150년 이상 걸려 완성한 길이 516미터, 폭 9.5미터의 카렐교를 만나게 된다. 수많은 여행자,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악사들로 붐비는 이 다리는 특히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과 체코산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으로 더 활기를 띤다. 다리 양쪽 난간에는 15개씩의 체코 성인들의 동상이 있는데, 이중 바츨라프 4세가 왕비의 고해성사 폭로요구를 거절한 후에 불타바 강에 던져진 안네포복신부의 청동상은 구시가지 광장의 안후스 동상과 함께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프라하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한다.

카렐교를 건너면 프라하성 앞의 말라스트라나 광장에 구시가지의 성 미콜라스 성당과 동일한 이름의 성당으로서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오르간과 여름밤에 열리는 콘서트가 유명한 성 미콜라스 성당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의 이름을 딴 네루도바 거리를 오르게 되면 흐르드 찬스케 광장과 프라하성을 만나게 되는데, 거리에는 번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자기집 문위에 주인직업을 상징하는 표식을 했던 유산도 볼 수 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프라하를 느낄 수 있는 체코 상징물인 성 비타 대성당, 구왕궁, 왕실정원, 황금소로, 슈테른 베르크 궁전, 성조지 바실리카와 수도원이 있는 프라하성을 만날 수 있다.



프라하성 입구

이중 구왕궁은 9세기부터 통치자들의 궁전으로 사용되다가 20세기 초부터 제2정원과 면한 한쪽 부분만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다. 성 비타 성당은 14세기 중반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20세기에 완성된 높이 96.5미터의 프라하 최대의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 정면의 지름 10.5미터의 장미창과 서쪽 쌍둥이 첨탑, 중앙의 우뚝 솟은 종탑, 남쪽의 황금문, 실내의 스테인 글라스는 물론, 카를 4세를 비롯한 역대 제왕들과 성녀포복 신부를 비롯한 주교들이 묻혀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보석의 도시' 체코 프라하

성조지 바실리카와 수도원은 10세기에 건립되어 17세기에 바로크 양식으로 개축된 프라하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서, 현재는 종교와 관련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의 미술품을 많이 소장 하고 있는데, 매년 스메타나 기념일인 5월 에는 음악제인 '프라하의 봄'의 연주회장이 되기도 한다. 프라하성 바로 뒤쪽에는 프라하를 관광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리는 코스중의 하나인 황금소로가 있다. 처음에는 프라하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되다가, 16세기 후반에 연금술사와 금제공수들이 살면서 황금소로로 불리어졌는데, 작카 카프카가 글을 쓰기도 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야로슬라브 세이페르트가 살기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야 만 될 정도의 작은 기념품점이나 선물 상점들이 즐비어있는 이 좁은거리에는 중세시대의 투구나 장신구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이 특히 볼만하다. 현재는 현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트 슈타인 궁전은 17세기 초에 황제에 대한 반감으로 프라하성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렌 슈타인 군대 사령관이 지은 궁전으로 유명하다. 이밖에도 프라하 남서쪽 20km의 거리 있는 14세기에 완성된 카를슈테인성도 가볼 만하다. 이처럼 프라하는 누구인가 말했다는 '보석의 도시' 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감흥을 주는 매력 덩어리의 도시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광주건축계의 어른 안태경 건축사를 만나다.



안태경 건축사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안태경 건축사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7대회장(1999 ~ 2001, 3)을 역임한 바 있어 지역 건축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그와 인연을 맺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품의 후덕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터에 안태경 건축사에 대한 회원탐방이 기획되어 부담 없이 즐겁고 평온한 마음으로 광주광역시 쌍촌동에 위치한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순미 건축사 기자도 기꺼이 동행해 주었다.



예전에 안태경 건축사와 인연을 맺었던 적이 있었던 터라 그 간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건축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가볍게 물어보았더니, 그 답이 흥미로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숙을 같이 했던 한양대학교 건축과 대학생이 사용하던 외제 제도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건축에 뜻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입학하였고, 학창시절에는 'T동인회'라는 학내동아리 활동과 함께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건축부문 특선 및 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홍중식 건축사, 송양식 건축사 등으로부터 건축설계실무를 익혔으며, 1975년에 '한길건축연구소'를 개업하였다. 그 후 건축사 개개인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1992년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를 태동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태경 건축사와의 대화내용을 1문1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를 꼽으신다면?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입사하여 인연을 맺게 된 '홍중식 건축사'와 광주·전남건축사회의 대선회비인 '김태만 건축사'입니다. 홍중식 선생님께서는 설계실무를 기초부터 익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면·성실·철저한 시간관리·정확한 약속이행 등을 몸소 실천하시으로써 상대방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만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신념과 성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시으로써 건축적 안목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며, 존경해 마지않는 건축사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Q.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면?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굳이 꼽는다면, 조선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여수대학교 인문사회관·전남 여저고등학교 재배치·상무지구 확산빌딩·첨단지구 첨단지합병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대학교 국제교류센터는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언어의 교류와 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민원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설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과 대상, 정보통신과 인간, 이성과 감성 등의 만남과 소통으로 새로운 가치를 재해하는 디지털(Digital+Analog = Digilog)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본관·도서관·학생회관 등과 함께 어우러져 국제교류센터가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조감도



전남여자고등학교 재배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건축대학 개설, 건축·도시사진 공모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건축대학개강식 개소식 (99년)

Q.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건축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거의 모든 사회활동은 건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건축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때와 일정부분에서라도 작품성을 인정받을 때 건축사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건축사들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룹화 또는 연금관리제도의 활성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제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봉사활동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이라고 들었는데?

국제라이온스 355-B지구 서서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서 장애인 돕기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활동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광주 장흥군 향우회 회장으로서 고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산물 판촉 및 홍보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역량에 맞는 건축적 공간을 찾기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고건축과 현대건축의 다양한 형태와 공간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건축탐방여행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리 : 서재형 건축사 기자
사진 : 광속권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Q.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역임하실 때 업적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업적은 업적(흐름)함과 쏘스름음이 같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시며)

간사·감사·부회장 등을 거치다보니 회장에 당선되었고, 평소 소신대로 '일하는 건축사회, 자립하는 건축사회, 봉사하는 건축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재임기간 중에 광주건축사회와 일본 후쿠오카 건축사회가 상호교류협정 조인식을 갖고, 건축작품 교류전을 통하여 건축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광주건축사회와 후쿠오카건축사회와의 결연식(99년)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TEL: (062) 223-6399
FAX: (062) 224-6399

건축사 김복선
광주광역시 북구 양동동 494-10번지
이메일: w6399@chol.com

(주)일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안태경
TEL: 010-9009-8284 E-mail: skat@ilwong.com
TEL: 062-253-7119 FAX: 062-253-7155
충무로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양동동 494-10번지

일우와 함께 한 교 회 비

광주주교교회	당일목사 김원호
대 천 목교회	당일목사 홍희수
여수성당교회	당일목사 장광동
사 로산교회	당일목사 안영민
죽 호천교회	당일목사 이정재
전라남도교회	당일목사 오병준
포항성서교회	당일목사 허석찬
수원교회	당일목사 주영찬
광주중앙교회	당일목사 양원홍(주비홍)
목포주교교회	당일목사 정기현(주비홍)
열린산교회	최비홍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해왔다. 본 지면에서는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재고시키고 건축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_ 한대진 건축사

The pixelated radiant city

• 금상 광주영상복합문화관

• 은 상 빛고을 시민문화관, 김치종합센터

• 동 상 TURTLE HOUSE, 상무 힐스테이트, 관산미래이동병원

— 광주의 역사와 상징성을 바라보다 —



영상복합문화관 야경

- 작품명 : 영상복합문화관
- 위 치 : 동구 서석동 47-1번지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주 : 광주광역시
- 설 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 시 공 : (주)대광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첨단영상매체와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산실로 자리잡을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Culture point를 제시한다. 본 건물은 5.18정신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을 투영하는 도구로서의 영상복합문화관, 빛으로 대비되는 영상문화컨텐츠의 가시적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영상복합문화관, 도시의 오픈문화공간을 바라보는 Culture Frame으로서의 영상복합문화관을 지향한다. 영상복합문화관의 주요한 Facade인 Media-wall은 건물의 내부공간(Software)과 외부공간(Hardware)을 연계하는 주요한 Layer로서 그 자체가 Main structure가 된다. 또한, 광주의 영상문화를 표현하는 Digital Media, 낮과 밤에 따라 입면을 달리하는 Multi Expression Wall, 광주의 Contents Data 연결통로인 Information Path로서 존재한다.

평면계획은 1층엔 Digital gallery와 영상미디어공간, 휴게정원 등을 두어 열린시민공간을 지향하였으며, 2층엔 사무공간과 콘텐츠연구실, 영상미디어공간2 등을 두어 콘텐츠 생산을 위한 지원 및 연구시설을 계획하였다. 3층엔 Cell station과 영상편집실, 영상스튜디오 등을 두어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을 목표하고자 하였다.

입면계획은 투명한 외피구조를 구성하여 Media wall에서 표현되는 영상과 내·외부 경계를 없애 Activity를 극대화 시켰으며 정보의 흐름을 디지털 코드화하여 입면에 적용시켰다. 또한 광주의 역사와 문화(옛 전남도청)를 투영시켜 담아냄으로써 인공적인 구조물이 도시와 맞닿은 경계에서 합일되는 스킨으로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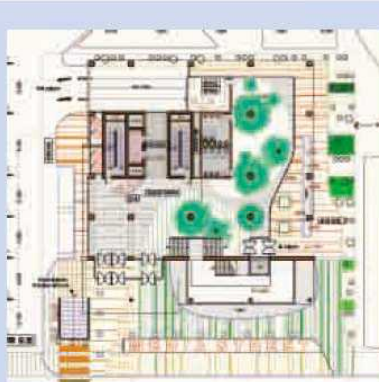
단면에서는 Media wall deck를 계획하여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갖게하여 각 기능별 연계 및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으며, Nude elevator를 설치하여 Media wall의 영상전시 체험공간과 연계하여 Event공간을 수직적으로 구성하였다.



주출입구 전경



배치도



1층 평면도



6층 평면도



내부 부분 투시

전주 한옥마을 탐방

박신남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유림 대표

지난 11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사)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시민건축투어를 광주광역시 건축사, 교수, 건축 관련 종사자와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제1부 '전주 한옥마을을 통한 새로운 주거의 발견'이라는 심포지움과 제2부 전주 한옥마을을 건축탐방 하였다.

제1부 전북대학교 박선희 교수의 "전주한옥마을의 주거로서의 가치" 주제의 심포지움에서는 한옥과 여성 그리고 삶은 불편하고 좁고 피곤함이 아파트를 선호하여 이주하게 만들었지만, 전주한옥마을은 근대주거에 현대의 전주시민의 삶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의 "전주한옥마을의 개발경위와 발전" 주제의 심포지움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옥의 변천사(1930년대~1960년대)를 알아낼 수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전통성이 갖는 미래성(新舊)의 조화를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잠재지라 하였다.

또한, 2009년 관광객이 28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자가 상승 및 상업화로 인해 예술인과 원주민이 내몰리고 있다고 하였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의 심포지움

전주의 역사적 배경

1253년 역사를 간직한 천년(千年)의 도시 전주(全州)는 900년 건립이 세운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 왕조 발상지이다.

전주는 조선시대에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실질적인 수도이며 행정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의 본고장으로 한옥(韓屋), 한식(韓食), 한지(韓紙), 한방(韓方) 등 전통문화 유산을 담고 있다. 넓은 평야와 바다를 잇는 지리적 천혜를 받아 풍요롭고 여유로운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섬세한 맛과 멋의 고장으로 새천년을 이어 왔다고 한다.

전주의 한옥촌의 발달과정

1905년 을사조약이후 일본인들이 전주로 들어오면서 천민계급이 사는 서문 밖 전주천변에 거주하게 된다. 당시 성곽은 계급 사회의 상징물로 존재 할 만큼 아주 중요하였다. 전주성은 동문에 완동문(完東門), 서문에 패서문(浦西門), 남문에 풍남문(豊南門), 북문에 공북문(拱北門)이 있었는데 양곡수송을 위해 전군가도(全郡街道)가 1907년 개설되면서 성곽의 서반부가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 강제 철거 되었다. 1911년 말 성곽의 동반부가 풍남문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어 사실상 전주부성의 자취는 사라져 버렸다.

성이 사라진 뒤 일본 상인들이 성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 전주거리가 격자화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었다. 전주 최대의 상권을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차지하자, 1930년 그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지금의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韓屋村)을 형성하였고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의식의 발로가 되었다.

국내 유일 도심 속 700여 채의 한옥 군락은 일본주택과 비교된 한옥 특유의 멋이 있고,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은 기묘한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오목대에서 바라다 본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옴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지금의 교동, 풍남동 한옥마을이다.



오목대에서 바라다 본 전주 한옥 마을 전경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유산

(풍남문, 경기전, 학인당, 전동성당)

풍남문은 전주부성의 4대문 가운데 남문으로 고려 공양왕 원년(1389)에 전라관찰사 최유경이 전주부성과 함께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옥마을의 상징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경기전(慶基殿)은 왕조의 발상지라 여기는 전주에 세운 전각으로 세종 때 불인 이름이다.

경기전 두 개의 문화코드에는 경기전 앞을 지나갈 때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에는 암수 사자문양을 새겨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고, 지붕에는 암수 문양의 두 마리 거북이를 올려 놓았는데 목조건축물에 화재막이 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기전은 정전과 조경묘로 나누어지는데 정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형식의 맞배지붕으로 전면 1칸 규모의 첨각을 정자각 형상 능침의 배례청을 설치하여 현재에도 매년 전통 제례 의식이 거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전 전경(능침의 배례청)

하마비



학인당 전경

정전 북쪽에 자리한 조경묘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신라 사공공, 이한 부부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영조 때 건립되었으며, 경기전은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가을풍경이 특히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삼원당 뒤쪽에 위치한 학인당은 700여 채 한옥 중 격식을 갖추어 건립된 지 100년이 된 대형 주택이다. 학인당은 조선시대 상류층 주택으로 궁중건축양식을 민간주택에 도입하였고,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 되어 지금도 수많은 명창들이 판소리 정기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다락방의 규모와 상쾌함에 놀라고,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유물에 놀라고, 쪽창에서 바라다 본 학인당 마당의 자연에 놀라고, 곳곳에 새로운 구조가 너무 많아 또다시 놀라는 학인당 이었다.

한옥마을을 초입에 위치한 전동성당은 소박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전동성당 전경

전동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해박해 때 처형 당한 장소에 전주성곽을 철거한 돌을 주춧돌로 사용하여 건립한 호남 최초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다. 곡성미를 최대한 살린 로마네스크양식과 웅장함과 아름다운 비잔틴양식이 가미되어 동양에서 제일가는 성당으로, 순교지 1번지로 손꼽힌다고 한다.

수많은 전통 문화유적지와 문화공공시설 등

전주 도심권에는 후백제와 조선시대 근대문화유적이 많다. 권현성터, 풍남문, 객사, 경기전, 오목대와 이목대, 학인당, 전주학교, 한벽당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공공문화시설에는 한옥생활체험관을 비롯 전통문화박물관, 공예품전시관, 공예 공방촌 지담, 전통한지체험관, 강암사예관, 동학혁명기념관, 민속장터, 최명희 문학관, 전통술박물관, 한지공예연구소 등이 있고, 은행로의 600년 된 은행나무 부자 등 전주문화의 집산지인 한옥마을을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막힌 골목길을 개통하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소통하여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었던 점은 대한민국의 명소 손색이 없었고, 곳곳에서 주변공공 시설물들의 세심한 배려가 소박하면서도 참 아름다웠다.



600년 된 은행나무 부자



공공시설물(실개천)

공공시설물(담장)

슬로우 시티에 선정된 전주한옥마을

21세기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림의 미학과 환경, 전통 등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가로 슬로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전통보존, 지역민 중심, 생태주의, 그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슬로우 시티(Slow City)는 국제슬로우시티 연맹을 통해 지방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녹색성장 관광분야의 대표적인 컨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선정된 전주한옥마을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세계 최솨이다. 국내최대 규모의 한옥 700여 채와 골목길이 살아있는 국내 유일의 한옥촌으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등 슬로우 푸드 컨텐츠와 함께 한지와 한지공예품, 판소리 등 한 스타일의 본고장이라 슬로우 시티에 선정된 배경인 것 같다.

슬로우 시티 지정은 전주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도시 관광 브랜드를 크게 향상시키리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의 구도심의 상업화로 인한지가 상승은 원주민과 예술인들이 높은 세 부담이 커이주하고 있는 현 실정기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교통정체와 주차난, 좁은 골목길이 보행권의 침해 받고 있으며, 동별 거리, 차마의 이격거리가 좁아 화재, 소음, 프라이버시, 방범 문제 등은 전주한옥마을이 슬로우 시티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일본 건축 기행

박홍근 건축사
모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여행은 반복적인 행에서 벗어난 짧은 고통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부딪치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여행을 떠날 수 없기에.' 지역에 있으면서 나타내지는 모습을 보며 지난 10월7일부터 3박4일 동안 일본의 후쿠오카, 기타큐슈, 고베, 오사카지역의 여러 건축물들을 답사했다. 여기에는 광무원, 고수, 건축사들 다양한 분야의 건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이었다. 많은 곳을 가고, 보고, 느끼고, 대화를 했다. 그중 지면 관계상 오래된 도시에서 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심재생과 관련된 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느낌을 나누고자 한다.

큐슈의 '캐널시티 하카타(Canal City Hakata)'와 오사카의 '난바(難波)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미국의 대형상업시설을 주로 하는 존 저디(John Jerde) 파트너스가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설계의 기본 개념은 자연적인요소를 건축물에 끌어들이려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열하느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널시티'는 물(운하)을 중심으로 이를 전개했고, '난바파크'는 인공지반위에 녹지계곡을 만들어 내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펼쳐지도록 계획되었다.

1. 캐널시티 하카타(Canal City Hakata)

1996년 4월 20일에 오픈한 캐널시티 하카타는 일본의 큐슈지방을 대표하는 도심재개발복합용도 프로젝트로, 화장품회사의 공장 이적지 약 35,000㎡에 개발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이다. 연면적은 약 260,000㎡에 이르며 토지 확보에서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소요된 장기 사업이었다. '캐널시티'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된 180m 길이의 인공운하가 중앙부를 흐르고, 수로를 따라 형성된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호텔, 영화관, 극장, 음식점, 쇼핑몰 등을 만나볼 수 있고,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배회동선이 있다.



캐널시티 종합안내도

접근성과 도시경관

인근의 지하철역과 도심부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지역에서 원활한 접근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공중도로 등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접근로를 만들어 외부동선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유입시키고 있다.

또한 복합상업시설의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 조경, 조명, 그래픽, 분수 등 내외부 환경디자인이 조화로워 흥미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요소이며, 독특한 도시경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접근을 원활히 하기위해 전면공지를 적절히 확보 입구

운하를 따라 형성된 흥미로운 보행자 동선

본 건물에 인접한 하천은 후쿠오카를 상징하는 도심 하천으로 캐널시티의 재개발에 맞춰 수변공간이 정비

됐고, 지역 활성화는 물론 도심으로부터 방문객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하주변을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배치하고, 저층부엔 상업몰을 형성해 전포판매 상가로, 상층부엔 극장, 비즈니스센터, 오락전문상가 등이 있다. 가로변에 면해서는 호텔과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유선형 건물과 화려한 색의 외벽을 가진 역동적인 실내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건축물 사이에 흐르는 180m의 수로가 구심점 역할을 잘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



인근 하천과 건물 내 운하가 연결된 자연친화적 풍경

이벤트 광장과 친수공간

문화와 함께 개발된 가로는 5개의 개념을 가진 외부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다. '밤의 정원', '달의 산책길', '태양의 광장', '지구의 산책길', '바다의 정원을 테마로 물을 따라 각 장소에 특징 있는 공간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태양의 광장'은 다양한 가로연주자들에 의해 이벤트가 연출되어 생기 있고 흥미로운 중심광장의 역할을 한다.



내부 공간 나열 개념도

이런 테마공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험거리들을 제공한다. 이 곳을 걷는 사람들은 인공으로 만들어 졌으나 자연스럽고, 또한 골목길을 걷는 것 같이 다양한 장면의 변화를 느끼며, 감상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곡선의 운하에 면해 다양한 목적의 건물들이 나열된 모습

2. 난바 파크(難波 park)재개발 프로젝트

오사카에 있는 '난바 파크'는 부지면적 37,179㎡, 연면적 297,000㎡정도의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주 용도로는 점포, 사무소, 문화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종전의 야구장이 있었던 장소의 공공성을 살려, 대규모 옥외정원을 만들어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1989년에 새롭게 동구장이 생기게 됨으로서 해체된 옛 야구장의 유휴지였지만, 1996년 「미래도시」를 컨셉으로서 재개발을 실시, 2003년 10월에 제1기 부분이,



난바파크 종합안내도

2007년 4월 19일에 제2

기 부분이 완공되었다.

주변 자연과 도시풍경을 즐기면서 2층부터 시작되는 정원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9층까지 연결된 옥상 정원과 협곡이 공존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 이곳의 테마는 '사람·자연의 공생'으로, 옥상공원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낮은 산과 계곡을 형성한 모습이다.

인공구릉지와 도시경관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즐거움과 색다른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건물위에 큰 정원을 중첩시켰다. 두개의 매력적인 테마가 있는 실제 건설의 융합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인공과 자연의 조합, 그리고 여유 있고 풍부한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 내에 대규모 인공 구릉지처럼 보이는 공원이 된다.



조화롭게 디자인된 건물외형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 인공협곡 모습

인공의 구릉지 공원은 도심속 아이시스 같은 역할을 하며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야구장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장소적 특징을 살려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성 있는 도심재생프로젝트로 보인다.

도시공원이 조성된 건물 옥상

건축물 상부에 약 10,000㎡에 이르는 옥상정원은 자연 친화적이고 감각에 즐거운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녹화 부분과 도시광장으로 구성해 제2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옥상을 지상과 격리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연구릉형상으로 계획해,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존케 하였으며, 또한 약 235종 4만 그루의 나무와 화초를 옥상에 심었다 한다. 이러한 녹지공간은 도시의 온도상승을 완화시키고, 건물의 단열효과 등 물리적인 효과와 더불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평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건축과 조경이 하나된 옥상도시공원 전경

다양한 옥외 체험공간 연출

9층까지의 녹화된 구릉지는 지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옥상에서 자연공원과 같은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소로 디자인되어 있다.

옥상의 대규모 공원과 상업몰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이미지화하고, 침식된 대지를 관통하는 골짜기를 연상케 하는 쇼핑몰(캐년 스트리트)로 형성화했다 한다. 물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가로 점포 배치와 가로의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전개되는 곡선쇼핑가로는 차별화된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공간과 흥미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도시공원

지금 까지 보았던 사례는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재개발프로젝트다. 이는 규모의 크기를 보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접근방식과 건축적 컨셉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용자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타산지적으로 삼고자 함이다. 역시 여행이란 좋은 것이구나, 잠시 생전의 일상에서 한 발 뒤로하여 나를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예술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공간미학 실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아래 설립 되었다. 더욱이 최근 광양만권 개발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는 건축학부로 바뀌어 실력 있는 국제건축사의 양성을 위해 5년제 건축학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건축학부에서는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근하면서 건축인력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키워나간다.

인간의 거주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는 등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사회에 건축이 미치는 영향과, 자국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한걸음 나아가는 건축가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학부 관련 연구실을 통한 현장체험 및 교육

우리 순천대학교의 건축학부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여러 연구실 통해 교수님과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고 건축사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연구실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건축 환경계획 연구실(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 Studio), 구조물과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실제상황을 파악해나가는 건축구조 연구실(Building Structural Engineering Laboratory), 쾌적한 공간 창출등의 공간관리를 연구하는 건축재료·시공 연구실(Construction & Material Laboratory), 건축물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연구하는 건축계획 연구실(Architectural Planning Laboratory),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건축 및 서양건축의 문화와 역사적 이론을 연구하는 건축역사·이론 연구실(Architectural History·Theory Laboratory)가 있다.

국제 건축사 양성을 위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교육과정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로써 학교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립 취업향상 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격 및 직무 적성검사 수검, 취업강좌, 정보화 및 전공 자격증 취득, 토익 등 어학 성적 취득, 취업캠프 참여,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보편적인 교·내외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활동들을 통하여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지원하며, 성적과 취업향상 포인트를 통해 교내장학금과 공동장학금 및 공과대학 학술장학재단 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을 위해 5년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기본도면의 작성을 '우리 집 평면도 그리기', '소규모 주택 및 공공시

설 설계', 표현 기법을 통해 '순수 오브제로서의 Cube 구성', '문학작품 속의 공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점차적인 교육을 통해 건축의 종합적 특성이 되는 역사적, 인간적, 환경적 기술혁신의 배움을 가지고 취업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실제로 우리 건축학부 학생들에게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글과 말로 표현함을 기본으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무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실제로 건축사 양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추진

우리 건축학부에서는 유비쿼터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제 건축사 자격획득을 위한 5년제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재학기간 중 건축사, 기술사, 건축기사, 건설안전, 의장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에는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감리회사, 건축구조기술사사무실, 건설 안전 진단회사, 건축설비기술사회사나 건축적산연구소, 그리고 건설연구소 및 전통건축 설계/보수분야, 건축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학부의 우수한 학생의 지원을 통해 2학년 때부터 교직 이수과정을 통하여 지정된 학점 취득 이후에는 실제로 순천지역 고등학교의 교생실습을 체험하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우리 건축학부의 최근 5년동안 취업률은 60~70%를 웃돌고 있으며 그 중 건설회사 40%, 건축사사무소 30%, 기타 교직 및 건축공무원 등의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건축학부에서는 졸업자들의 수도권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정도의 결실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1~2명씩 일본으로 교류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해외 문화탐방, 어학연수 등 다수의 학생에게 해외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부장 : 박일민 교수 il_min@yahoo.com
학부사무실 : 061)750-3520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미래를 개척하는 지역거점 명품대학



구례 화엄사 답사



광주·전남디자인 캠프



강변로 치없는 거리 전시



현장답사



SAD디자인캠프

광주대 건축학과, 전국공모전에서 다수 수상자 내 - 2010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에서 금상 등 다수 입상



(대중을 위한 문화놀이터)은 광주도시
중심에서 전문화를 강하게 지닌 항교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문성현, 박미진 팀이 지난 12월 1일 광주디자인센터 전시실에서 열린 2010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금상 수상작인 'IN = OUT'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자영, 오아름, 간소연 팀이 동상에, 김시예, 신나영, 이승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lh3759@naver.com

전남대학교 진로정보 제공하는 진로 아카데미 개최 - 자기탐색과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12월 2~3일, 공과대학 2호관 첨단강의실에서 양일에 걸쳐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돕는 진로 아카데미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이미지 메이킹 강의 CEO 초청

강의 선배와의 만남 교수님과의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탐색과 진로목표 설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j@naver.com

전북대 건축학과, 농어촌 건축대전에서 대상 수상 - 김태형 외 2인의 '흘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까지' 작품 선정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김태형, 강영길, 김선혜(지도교수 남해경)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2010 한국농어촌 건축대전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계획안인 '흘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까지'를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농촌마을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고장 고창 강선달권역의 신자룡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내에 방치된 빈집들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낙후된 주거를 개선하고 조립과 분해가 편리한 모듈로 유닛을 구성한

다음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거노인과 기존주민들이 집단을 이루고, 또 다른 취약계층인 조손 가정과 도시민과의 집단, 다문화 가정과 도시민과의 집단, 주민들과 도시민과의 집단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다양한 집단들 안에서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배려와 관심 속에서 마을의 사라졌던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200여 작품이 출품되어 1차에서 47점이 통과되고 2차에서 7점이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팀은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과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졌다.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김소희 학생기자
el8734@naver.com

2010 제6회 전북 학생건축대전 개최

- 전북대 인자룡 외2인 'Connecting inside' 대상수상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 주최로 '제6회 전북 학생건축대전'이 전북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전북도내 건축과 학생들의 사회 진출 디딤돌과 등운명이 될 수 있는 전북 학생건축대전

에서 공모작품 전시 및 작품을 수상하였다.

대학캠퍼스 내부공간흐름과 길찾기 특성 표현이 잘 부각된 'Connecting inside' 작품이 대상(전북대 인자룡, 김동현, 우가관)을 수상하였으며, 전북건축학회회장상(우석대 전정익), 전북건축사협회장상('소통의장터' 원광대 김은영, 권영근, 김형준),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7점의 출품작 중 24점이 선정되어 수상 및 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주어졌다.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김소희 학생기자
el8734@naver.com

후쿠오카, 일본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권진석



조선대학교 건축학부의 산업시찰로 인하여 가깝고 먼 나라 일본을 가게 되었다. 80여 명의 우리 일행은 모든 수속을 마치고 마침내 일본으로 향하는 쾌속선에 오르게 되었다.

후쿠오카에 도착 후 우리 일행은 '하카타 타워'를 가게 되었다. 아래에서 올려다 본 하카타 타워는 강한 바람에 의해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건축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지라 그러한지 구조물의 거동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한국과는 달리 도보에 쓰레기나 담배꽂이 하나 없었다. 이러한 것이 일본의 환경이고 시민의식이라는 것에 감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조금이나마 일본의 시민의식을 본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 넥서스 월드 '카사이'를 견학하게 되었다. 눈에 띄는 모습은 지진에 대해 방지를 한 댐퍼 설치였다. 원래 후쿠오카는 일본 열도에서 지진 발생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구분되었지만, 2005년 후쿠오카에 큰 지진이 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다. 국가 자체적으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다. 이와같이 설치된 댐퍼로 보강되어 있다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도 안전할 것 같았다.

우리는 구마모토에 있는 '시영신치단지'를 보러가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감탄사가 나왔다. 단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나라의 '헤이리'나 '출판단지' 건축물은 각각각각 봤을 때는 더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인다. 반면에 이곳의 단지는 아가지기하고 정형화된 미를 보여주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깨끗함'이었다. 거리 자체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이 너무 좋아 보였다. 우리나라의 거리도 이만큼만 깨끗했다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쿠오카의 셋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0 ISIA' 학술발표회에서 발표자들이 속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발표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덕분에 학술발표장인 국제회의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국제회의장의 규모는 정말 컸고 구조 자체가 너무 신기하였다. 우리는 발표자들과 함께 후쿠오카 최대 쇼핑몰인 캐널시티를 관광 및 쇼핑하게 되었다. 이곳은 여러 가지 상표들의 매장이 있고 구조자체가 신기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구조자체가 정형적인데 비해 이곳의 캐널시티는 사유분방하게 구조되어 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배울 점을 안겨주었다. 건축적으로는 지진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구조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은 시민의식이다. 일본의 거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쓰레기나 담배꽂이 하나 버리면 범칙을 저지른 것과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국의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여덟 가든 출연자들이 많지만 일본은 출연자 또한 지정된 출연 장소에서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교통 신호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통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일본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지킨다는 것이다. 이번 건축답사를 통해 일본의 시민의식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다.

Where Are You Going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석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군과 민간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세계는 '3차 대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매스컴에 이를 대서특필 하는 기분 나쁜 뜨거움을 느끼는 요즘이다.

일제 강점기와 골육상쟁의 전쟁, 군사 정권,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 자신은 목표가 있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모 일간지에서 내린 대한민국 중산층의 개념은 이렇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1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고 30명 이상 아파트에 살며 2,000cc 이상 차를 타야 한다."

개념이 이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

는 감정을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소위 서울 사대문 안의 대학 졸업과 10대 기업, 서울 소재 아파트, 소나타 이상급의 차량소유 여부를 묻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 중산층의 개념은 이러하다.

"외국어 하나쯤은 자유롭게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며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를 할 줄 알고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설 줄 알아야 한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패러다임에 있어 우리의 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대는 아는가?

겨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물어보라. Where are you going?"

광주시, 광주국제인본디자인도시포럼 개최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에서 사람중심의 광주 도시디자인 모색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2010 광주국제인본디자인도시포럼'을 열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이루기 위한 인본(人本) 디자인 도시 광주의 비전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 '디자인도시'가 아닌 '인본(人本)디자인도시'를 선포한 이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가 깃든 인본도시의 전통을 이어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

'사람들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강연대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본디자인도시 광주의 비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디자인 도시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은 기초발제에서 광주의 지형과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기질에 걸 맞는 도시디자인을 제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인 노르웨이의 아비드 오파르는 인본중심 건축의 핵심인 병원 설계와 '베리어프리' 디자인을 소개하면서 인본도시 광주가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 척도를 제시했다.

대안예술매개공간 '미나리'의 박성현 대표는 광주 대안예술시장 프로젝트에서 도시와 예술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획을 제안하고, 독일 뮌헨대학 막달레나 에텔로바 교수는 도시공간에 예술을 접목하는 세계적인 설치작업 사례를 선보였다.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은 '꿈의 도시 꾸리씨버'의 고민과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인본도시 광주의 새로운 꿈을 제안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어번디자이너 사카기 타케루 교수는 '도시디자인과 대학커뮤니케이션에서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또한 포럼의 말미에 이뤄진 종합토론회(좌장 조영준교수, 조선태)에서는 정철웅(경성대 건축과 교수), 노경수(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강동진(광주전남 디자인협회 회장), 임태형(광주대 교수), 나일환(한국문화사연구원) 회장이 참여하여, 광주의 특화된 디자인을 발굴하고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사람 중심의 디자인 모색을 합의하였다.

한편, 이틀째인 27일에는 외지인 등을 포함한 30여 명이 5.18기념묘지-가사문학관-낙안읍성-대한단지 등 광주 전남의 건축물들을 투어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0 광주국제인본디자인도시포럼은 다양한 도시전망, 행정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광주 인본디자인의 방향과 철학,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에서 도시디자인을 위해 각국의 사례와 각 전문가들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새로운 광주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직접적 전문가인 지역건축사의 참여형태가 낮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광주의 정체성 확보와 광주만의 디자인을 위해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0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 광주 북구 신안동 시각장애인선교회 건물 리모델링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올해로 4년째이며 다섯번째 프로젝트로 신안동의 시각장애인선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이 사업의 주최는 광주광역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이며, 주관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위원회이다. 참여대학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이며 후원은 (주)성성건설, (주)가나에드컴, (주)한길중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미가온이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우리 주변의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불편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편견 등을 없애 결국 심리적인 장애까지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2008년을 시점으로 생촌종합사회복지관과 남구 실로암센터 리모델링을 하였고 조대치와 병원 앞 유니버설 버스정류장 및 막달레나의 집을 신축하였다.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시각장애인선교회 건물은 주진입구가 계단(턱)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잡한 공간 구성 및 옥상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세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2010년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주진입구를 편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이용도가 적은 1층의 다목적 강당을 4층으로 이동시키면서 1층의 활용도를 높였다. 옥상의 방수공사 및 기존의 외관은 빨간색 페인트로 마감되어 볼거움을 주었으나 리모델링 후 깔끔한 외관으로 변신하였다.

정림건축 故김정철 명예회장, 100억 원 기부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키로 해



에 환원하고, 기부를 위한 '정림건축

지난 9월 별세한 한국 건축계의 거목 김정철 명예회장이 100억 원 상당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철 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정림건축' 기부 10%를 사회

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들이 건축업계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본 10%를 출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정철 회장은 1966년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정림건축을 창업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과 건축사협회 이사, 대한건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태 임만택 교수, 생태환경건축 우수상 수상

-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교육부에서 수상



우수상 시상식에 대해 '건축환경' 부문에서 30년 이상 강의 및 창의적 연구·각종 관련학회·자문회의 등에서 적극적

조선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임만택 교수가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교육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는 임 교수의

인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국내외 친환경 건축의 확산과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이룩하였고 20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20여 권의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고 이의를 밝혔다.

'생태환경건축대상'은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주최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증대와 친환경 건축의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설계, 기술, 정책, 교육의 각 분야별로 생태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성호, 송명옥, 김기범, 정영범, 정관석,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정	50만원
정명철		(주)에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이주경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50만원
김희현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30만원
박동준		(주)그림로에이 건축사사무소	25만원
(주)유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5만원
케이블송호터			50만원

건축문화 **사랑** 표/지/설/명

배경: 전주시 전통성당
전통성당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천주교의 성당이다. 현재 전주시에 안에 세워진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호남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영화의 촬영지나 결혼식 장소로 자주 쓰이기도 한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예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사공제조합 2011년 1월부터 사업개시

- 12월 6일, 본협회에서 창립총회 열고 정식 출범 선포



건축사공제조합이 12월 6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2011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6월, 공제사업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되어 건축사 공제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산하에 건축사공제조합을 신설

하여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출자금 모집을 하는 등 개시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는 '보증업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대신 지급할 금액을 담보), 손해배상공제업무(당해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장), '용자업무(운영자금 융자)', '기타업무(조합원의 경영 및 건축제도·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가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ira-fc.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7~11차 강좌」 진행

- 12차, 13차 강좌 : 12/16(목) 15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광주 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에 제7차 비엔아이에스 윤두영 소장 강좌, 11월 25일에 제8차 조선대 조용준 교수 강좌, 제9차 현대건설 김광재 소장 강좌, 12월 2일에 제10차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 강좌, 11차 목포대학교 황해주 교수 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열린 강좌들의 주제는 제7차 '기술과 정보시스템 관리', 제8차 '도시디자인과 기성시가지 재생', 제9차 '건축물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제10차 '친환경 건축설계 방법론', 제11차 '친환경 건축자재'로 열렸다.

공개강좌로 열린 이번 강좌들은 광주 건축사회원을 비롯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건축사 아카데미에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향후 12월과 1월 중 강연은 12월 16일(목) 15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중 교수의 제12차 강좌와 동일 16시 30분에 법무법인 서석 윤준주 변호사의 제13차 강좌, 1월 15일(토) 전일 열리는 건축사사무소 서로 정광민 건축사의 제14차 강좌를 끝으로 제1기 광주건축사아카데미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여수건축사회 '제3회 여수건축문화제' 열려

-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돼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여수시청 로비 및 회의실에서 제3회 여수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다.

건축인여수사랑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전시행사와 참여행사, 부대행사로 나누어 열렸다.

전시행사로서는 제3회 여수시 건축상 전시회, 건축작품전, 한옥작품전, 학생작품 전시이 열렸으며 참여행사로서는 도시재생 디카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건축도시그림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부대행사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주제관 및 예술마루 설명회, 건축상당일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제를 주최한 건축인여수사랑운동협의회 조연준 공동대표는 "제3회 여수 건축문화제가 여수사랑·건축사랑의 가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부안군 변산 일원 마실길 걷기대회에 100여 명 참가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1월 6일에 부안군 변산 일원 마실길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주건축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을 비

롯한 회원, 회원가족,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대명리조트(경포)를 출발하여 고사포 해수욕장까지 2시간여에 걸친 걷기대회를 가졌다.

부안 마실길은 지난해 개설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 같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걷기대회를 마치고 고사포 해수욕장에 집결하여 각 지역 회원들로 팀을 이루어 티볼 경기를 진행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두 달여 남은 경인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화합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전북 최상철 건축사 집필도서, 문광부 우수 도서에 선정

- 올해 3월 출판한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선정



전북 최상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연백당)가 집필한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이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196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출판진흥 사업으로 문학, 철학, 아동청소년 등 12개 분야에서 도서를 선정·구입하여 전국 각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도서벽지의 학교나 청소년센터 등 1,800여 곳에 배포함으로써 국내 출판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전북건축사회, 「사랑의 화재감지기」 기증

- 전주 완산소방서에 '독거노인세대를 위한 화재경보기' 기증해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300개를 전달하였다. 이성엽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산소방서에 전달된 화재감지기는 화재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노인들의 생활안전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호회 소식 | Art



올해 1월 초에 열린 제12회 회원전

- 글 프 등 호 회
- 낙 시 등 호 회
- 등 산 등 호 회
- 미 술 등 호 회
- 바 독 등 호 회
- 축 구 등 호 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원전을 갖게 되었다. 평소 건축활동과 미술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을 키우며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건축 예술은 미술과 상호 조화적 관계이며 조형 창작 예술인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

회원전을 통하여 건축 개념을 바르게 느끼고 인지하여 건축사 위상을 위하여

힘을 모아 보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 제13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원전
· 일 시 : 2010. 12. 21(화) ~ 30일(목)
· 장 소 :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 개막식 : 12. 21(화) 오후 5시

양동현 건축사 (광주 미술동호회 회장)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이영준 건축사 / 이리울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요촌동 595-4
- 김종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AT
- 전북 김제시 요촌동 595-4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876-5 번지

*부고

- 박기두 건축사 / 나한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11월 8일(월)

전남 건축계 동정

*재입회

- 안문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일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04-5

광주 건축계 동정

*변경 (소재지 변경)

- 심문기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금호동 829-1
- 정광렬 건축사 /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오룡동 1110-33
- 홍만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언터
- 광주 북구 운암동 1632

*결혼

- 정재경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차남 - 11월 6일(토)

- 최영태 건축사 / (주)대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197

●● 세상에 사는 그림

자리끼

최상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윗목에 정성스레 떠다놓던 자리끼

커피만 내놓기에는 조금 미안했으나 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세련된 모닝커피가 아니라, 그냥 그 쓰디쓴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 하나를 정성껏 풀어놓고, 참기름 몇 방울을 '톡톡' 떨어뜨려 주는 것이 전부였다. 간단했지만, 아침 해장(解醒)치고는 의외로 거뜬했다. 못 손님들이 오가는 다방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남의 '속'까지 살피 주었던 것이다.

우리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잠자리까지 정성을 들이고 살피는 공간이었다. 이른 아침 부뚜막에 정화수(井華水)를 떠놓는 정성에서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서 하루 세끼 끼니를 준비하다가, 마침내 밤이 이슬해지게 되면 자리끼까지 마련해두었다.

자리끼란 '잠자리'와 '끼니'라는 말을 합친 것으로서, 마치 끼니처럼 잠자리에 들 때 거르지 않고 준비해두는 물이라는 뜻이 된다. 매일 밤, 잠자는 머리맡에 물을 떠

놓다니?

물론, 자리끼는 잠을 자다가 갈증이 나면 우선 마시라고 준비해둔 물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집안 식구들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하게 되므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아궁이에서 직접 장작불을 지피고, 거기에서 달구어진 구들로 난방을 해야 했으므로, 방바닥은 뜨끈뜨끈했지만 실내공기는 쉽게 건조해지곤 하였다.

때론 방바닥 아랫목이 시커멓게 그을릴 정도였다. 일부러 습도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겨울에 방문을 활짝 열어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방안에 젖은 빨래를 걸어두기도 하고, 작은 대접에 냉수를 떠다 놓기도 하였다. 그때 그렇게 머리맡에 놓아둔 것이 바로 그 '자리끼'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 어른이나 아이들의 이부자리를 살피고 자리끼까지 챙겨놓은 뒤, 밤새 편안 무탈하기를 바라며 물러나오는 그 마음! 어쩌면 그제 밤에 떠놓는 또 다른 정화수(井華水)였는지도 모른다.

옛날 우리건축은 그렇게 마음이 들어앉을 '빈자리'를 만들어놓았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제법 귀밀이 시려진 것을 보니, 옛날 같으면 자리끼를 떠놓고 잠자리를 챙겨야 하는 계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이번 겨울에도 다들 건강하기 바란다.

BOOK **한옥**

참살이 한옥

출판사 / (주)주택문화사

최윤선
장 건축사사무소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한옥은 도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낡은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갔다.

하지만 기능만을 고려한 나머지, 물개성적이고 획일화된 도시의 아파트와 고층빌딩은 차츰 현대인을 지치게 했다. 삶의 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웰빙' 즉 '참살이'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우리 한옥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에 따라 지은 집으로 양옥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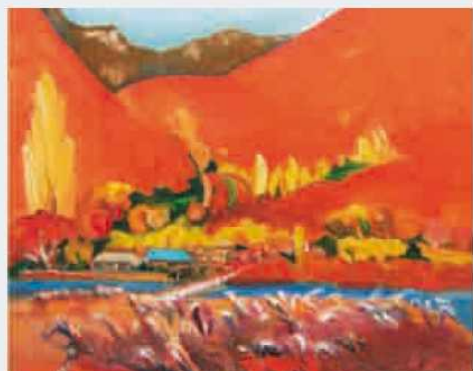
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공간'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도시형 한옥의 특징은 전통 한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기존의 구조를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한 것이 많다. 도시형 한옥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도심속에 고즈넉한 휴식공간으로,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상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고 현재의 숨결을 불어넣어 새롭게 탄생한 도심 속 생활공간, 문화의 향기가 느껴지는 도시형 한옥 25채가 소개되어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관이나 작업실, 갤러리와 와인바 등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한옥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살피볼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이 되고 아울러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 가득한 한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건축사 Gallery



622 X 50.0cm oil on canvas

가을날의 요정

빛! 빛의 조화는 함(倫)
함(倫)은 어울림
가을날의 본색
요정의 만취

양동현 건축사 작

Photo



타키여행자와의 담소

여행

여행은 여유로움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몸과 마음에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이러한 일탈은 삶을 더욱 더 열정적으로 사랑 할 수 있게 한다.

이순미 대표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migaon@hanmail.net

●● 한결의시

雲鳥樓

權岩 유응교

영조 1776년 7대조께서 '금귀울내'에 터 잡으실때 좌정룡 우백호로 지리산도 내달렸고 오몽산 읍조리는 속에 섬진강도 흘렀으리요.

기름진 옥토가 집앞에 펼쳐 있고 문수동 골짜기에 시린물 흘러오니 내수구 외수구가 제대로 되었구료, 산줄고 물이좋아 오미동 이름인데 조상이 내린 음덕 예까지 비치이오.

구름은 바람 따라 넘나들고 새들은 제집을 자유로이 찾아들건만 나는 어이 고향에 못 가는지 한탄하던 도연명의 시귀에서 운조루의 현판 걸고 속세를 떠나셨던 할아버님 큰 기침소리 지금도 들리이오.

중조부님 사랑방에 70평생 일기 쓰신 지필묵 한지 위에 묵향은 남았는데 후손은 허릴없이 세월만 보내나니 뵈을 날없나이다.

할아버님 손수 쓰신 일기장 넘겨보니 구구절절이 효심에 넘쳐있고 가난한 이웃들에 음덕을 베푸심이 지금도 후손에게 귀감이 되나이다.

시냇가 바위에 천렵으로 안주삼아 친구들 불러놓고 시회를 여실 적에 할아버님 읊으시던 7언 절구 가락들이 지금도 냇물 따라 실려 온 듯 하오이다.

Profile

전남 구례 운조루(雲鳥樓)에서 출생
現)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詩集〉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잠들지 않는 그리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세상」 외 다수

ryu6833@hanmail.net
http://blog.daum.net/ryumind, http://unjuoru.com



광주건축·도시문화제
theme of 2010 Grauc

회복·이울림

7TH GWAN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총결산

- 4만여 명의 유료 입장인원 기록하며, 시민들에게 차기 문화제에 대한 기대치 높여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복과 이울림'이란 주제로 열린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문화제는 전시행사, 공모전행사, 건축문화심포지엄, 광주건축 MAP 전시, 시민건축투어, 시민건축상담, 특별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야행사로 열린 건축인의 축제 '건축인의 밤'



건축인의 밤에 참석한 수많은 건축인들과 사회저명인사들

품격을 갖춘 구성으로 진행된 이번 건축인의 밤 행사에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로 열린 건축인의 밤에 광주광역시 송귀근 행정부시장과 국회의원 박주선, 시의회 윤봉근 의장,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광주시 송광은 북구청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광주광역시 건축상 시상, 자랑스런 건축인故임영배 교수 추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명사들의 대거참석으로 빛난 개막식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의 테이블 커팅식

개막식이 열린 4일에는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윤봉근 의장,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아나가와 하루미 부회장, 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 리우유신 부회장 등 이 지역은 물론 해외 명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해주었다.

5개 분야의 전시행사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을 관람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

진행 과정부터 건축계의 큰 관심을 받은 전시행사는 총 5개 분야 나뉘었다.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를 포함하여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독일 친환경 작품전,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디자인캠프 결과물 전시회가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인 공모전행사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건축·도시 사진공모전과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에 올리는 유독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높은 상금이 걸린 건축·도시 사진공모전은 약 10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수상작을 늘린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중학생들의 4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 되었다.

건축문화심포지엄 3강좌-승효상 건축사 초청강연



문화제 기간에 열린 승효상 건축사 강연회

모 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에 가장 성공한 남자 7인 중에 한 사람인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승효상 건축사의 초청강연이 문화제 기간 중에 열렸다. 이날 강연은 '성서적 풍경'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0여명이 넘는 인원의 참석으로 강연장의 빈자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시민 무료투어로 진행된 시민건축투어



시민 및 학생 건축사들의 참여가 돋보인 시민건축투어

문화제 기간 중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시민건축투어는 광주건축 MAP에 수록된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탐방하여 시민들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1일차에는 38명, 2일차에는 42명, 3일차 42명 등 총 120여 명이 넘는 시민 및 건축사,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건축상담을 통한 대시민 유대강화 달성



여성건축사 회원들이 벌이고 나선 시민건축상담

건축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시민 유대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시민건축상담에 일반시민들의 상담요청이 문화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우리가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건축이라며 이런 상담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특별행사도 진행돼



올해는 유독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다.

특별행사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회를 비롯한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 공동주택전시회, 경관 취약자 개선 사업자로 전시회,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워크샵 작품 전시회 등의 판별 및 모형 100여 점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며 한 관람객은 "문화제를 통해 건축사들이 건축활동뿐만 아니라 이 외의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팬이기초공법 (6연식형/현장타설형)

팬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팬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 형 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